

보도시점

(인터넷) 2026. 9. 20.(일) 11:00
(지면) 2026. 9. 21.(월) 조간

배포 2026. 9. 18.(금) 오후

해수부, 추석 연휴에도 안전하고 막힘없는 항만서비스 제공한다

- 9.24~9.27, 2026년 '추석 연휴 항만 운영 특별대책' 시행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24일(목)부터 27일(일)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'추석 연휴 항만 운영 특별대책'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연휴 기간 동안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'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(PORT-MIS)*'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, 시스템장애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리 인력을 24시간 운영한다. 또한, 예·도선 서비스를 비롯해 선박 연료, 선용품 공급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필수 항만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* PORT-MIS(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) : 해운·항만 민원신고와 허가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

수출입 화물의 경우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며, 추석 당일에도 산업 필수자원 등 국민경제와 산업활동에 중요한 화물의 하역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 지원을 통해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할 계획이다.

또한,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14일(월)부터 23일(수)까지 '항만 안전 특별점검 기간'을 운영한다. 근로자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TBM* 진행과 작업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.

* TBM(Toolbox Meeting) : 작업 시작 전 현장 근로자들이 공구 상자(Toolbox) 주변에 모여 당일의 작업 내용과 안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

이와 함께 출입 관리 등 항만 경비·보안 업무는 연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.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테러, 해상 밀입국 등 각종 보안 사고 발생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.

뿐만 아니라 항만별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, 11개 지방해양수산업청 및 4개 항만공사 누리집*에 항만 운영 관련 업체 연락처를 공지하는 등 관계 기관과 항만업·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 긴급상황이나 항만 이용 불편 사항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.

* 항만공사 누리집 : 부산(www.busanpa.com), 인천(www.icpa.or.kr), 울산(www.upa.or.kr), 여수광양(www.ygpa.or.kr)

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"추석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며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항만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."라며, "연휴 기간에도 국민과 기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	책임자	과 장	정동원 (051-773-5770)
	항만물류산업과	담당자	사무관	송은정 (051-773-5771)
	해운물류국	책임자	과 장	한지웅 (051-773-5790)
	항만안전보안과	담당자	사무관	이정훈 (051-773-5791)